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 코너



고온 스트레스에 대한 비타민 역할

일반적으로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폐사 및 생산성 저하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비타민 복합제를 음수로 투여하고 있는데 북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육계에 비타민과 전해질의 음수투여가 면역기능과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결과 고온 스트레스시에 비타민이 음수투여가 증체와 사료효율을 개선하였으며 폐사율도 감소하였다. 38일령부터 41일령에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폐사는 비타민 투여군에 비하여 2.5배 높았다.

고온환경은 육계에서 폐사율의 증가와 생산능력을 감소시키며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고온 환경하에서 음수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전해질을 투여 하였던바 비타민의 음수투여는 생산능력의 향상이 보였으나 전해질의 투여는 생산능력의 향상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하였다.(AG 93.12)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이용

일본의 화학혈청연구소가 계병 사례검토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사육형태, 위생환경 등에 따라 여러가지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기때문에 한가지의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그 농장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고 결국 이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소 병성감정실에서는 전국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하여 백신접종시기, 백신접종효과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항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항체 측정치에 따라 백신 접종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IBD(감보로병)이고 기타 백신접종효과의 평가, 감염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IB(전염성기관지염)는 항체가 만으로 평가하기는 충분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생산성을 참조하여 평가된다.

ND(뉴캐슬병)는 분무접종하면 항체생산이 높아 야외바이러스 감염이 아닌가 의심하는 수가 있다. 앞으로 오일백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접종프로그램이 크게 변경될 것이라고 하였다.(AH 94. 1)

닭의 살모넬라균 오염과 방제대책

일본 농수성의 동물약품 검사소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최근 장염균이 식중독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87년경부터 장염균을 원인균으로 하는 식중독이 증가하여 닭에 의한 장염균감염증 대책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염균에 자연감염되거나 실험적으로 경구감염시킨 산란계에서 장염균의 계란을 통한 감염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사료에 의한 감염도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쥐에 의한 전염경로가 미국에서 증명되고 감충류도 살모넬라균을 매개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살모넬라균의 수평전파는 오염된 음수, 계분, 사료 등을 통한 경구 감염을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장염균의 경우는 접촉감염, 기도를 통한 공기감염, 더우기 결막을 통한 감염도 전신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판명되어 감염경로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장염균 방제대책의 기본은 양계장내에 장염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닭을 감염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

장염균의 침입방지 대책은 청정추의 도입, 살모넬라균이 없는 사료의 사용, 정기적인 사육환경의 구석작업, 청정화, 소독 등이며 감염방어로서는 스트레스 예방사육, 약제활용, 백신의 응용 등이다.

앞으로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스트레스와 세균배설 그리고 스트레스와 오염란의 산란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NK 94. 1)